

미국 가사노동자 조직 현황

지민선
Ph.D.,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미국 가사 노동자의 현실

국제

- 국제노동기구는 전세계적으로 적어도 5260만 명이 있다고 추산
- 2011년 6월 16일 국내 작업에 대한 ILO 협약 189의 역사적 채택(채택된 권장사항 201 포함)

미국

- 2천만명 가사 노동자 (housecleaners, nannies and health aides)
- 평균 시간당 \$12.01 (2020)
- 국내 근로자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5명 중 1명만이 직업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노동법 보호 미약

- 가사노동자 보호 제외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 (No Social Security, No minimum wage and overtime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and No collective bargaining law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 1974- 가사노동자 보호 포함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지만, 같이 사는 가사노동자 보호 포함 안됨/도우미 포함 안됨 (companionship)



가사노동자 조직

- **Mujeres Unidas y Activas** (MUA, 1990)는 라틴계 이민자들이 가정폭력, 노동자 학대, 차별 방지위해 설립
- **Domestic Workers United**: 2000년
- 2005년 샌프란시스코 가사노동자 처음으로 미팅.
 - ex) 워커스 센터: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CHIRLA), Centro Humanitario, the Pilipino Worker Centre (PWC)
- 2007년 6월, first United States Social Forum (USSF) 아틀란트: 방글라데시, 필리핀, 바베이도스, 아이티,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등 50여명



가사노동 조직 역사

- **Mujeres Unidas y Activas** (MUA, 1990)는 라틴계 이민자들이 가정 폭력, 노동자 학대, 차별, 고립
- **Domestic Workers United**: 2000 by members of Kalayaan/Women Workers Project of CAAAV: Organizing Asian Communities, in collaboration with Andolan
- 2005년 샌프란시스코 가사노동자 전국적 모임.
Ex) 워커스 센터:Coalition for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CHIRLA), Centro Humanitario, the Pilipino Worker Centre (PWC)
- 2007년 6월, first United States Social Forum (USSF) 아틀란트 방글라데시, 필리핀, 바베이도스, 아이티,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등 50여명 참석- 가사노동자 전국 조직 필요함을 제시
-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2007) 형성

We Dream in Black

- 위 드림 인 블랙은 마이애미와 전국에 있는 흑인 가정 노동자들의 정치적 고향이다. MWC는 흑인 가정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의료, 육아, 청소 분야로 전환하는 한편 정치적 행보를 통해 우리 기지의 리더십을 키우고 돌봄 산업의 바닥을 다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ijen Poo 2007년 창설
20,000 가사노동자 대변
15개 단체로 시작- 25개 단체

STRATEGY ORGANIZING AND LEADERSHIP

SOL은 국내 16개 신흥 근로자 조직을 포함해 25개 NDWA 계열사를 대표하는 75개 이상의 국내 근로자 리더와 직원을 양성한 집약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 개발 및 조직 역량 구축 프로세스.



이 펠로우십은 돌봄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미개발된 리더십 잠재력과 그 리더십의 독특한 기여를 육성하고자 한다.



노조의 지원

- AFL-CIO의 존 스위니 (John Sweeney) 회장은 2007년 6월 7일 열린 DWU 권리장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40년 동안 가정 노동자로 일했던 모친과 가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 2011, May 10: AFL-CIO와 NDWA의 파트너십형성

Domestic worker Bill of Rights

- 가족이랑 같이 사는 가사노동자는 적어도 24시간중 12시간은 일의 의무가 없다.
- August 31, 2010: New York Enacts Bill of Rights for Domestic Workers (주지사- David Paterson), Nov.28, 2010부터 효력
- 2019까지- 10개의 주에서 패스
- [Hawaii](#) (2013), [California](#) (2013 and 2016), [Massachusetts](#) (2014), [Connecticut](#) (2015), [Oregon](#) (2015), [Illinois](#) (2016), [Nevada](#) (2017), and [New Mexico](#) (2019)
- 도시법 (2도시): [Seattle](#) (2018) and [Philadelphia](#) (2019).
- 2019: Harris Kamala's Bill 제안 (July 15)- 오버타임, 식사시간

이민자가 만든 노동자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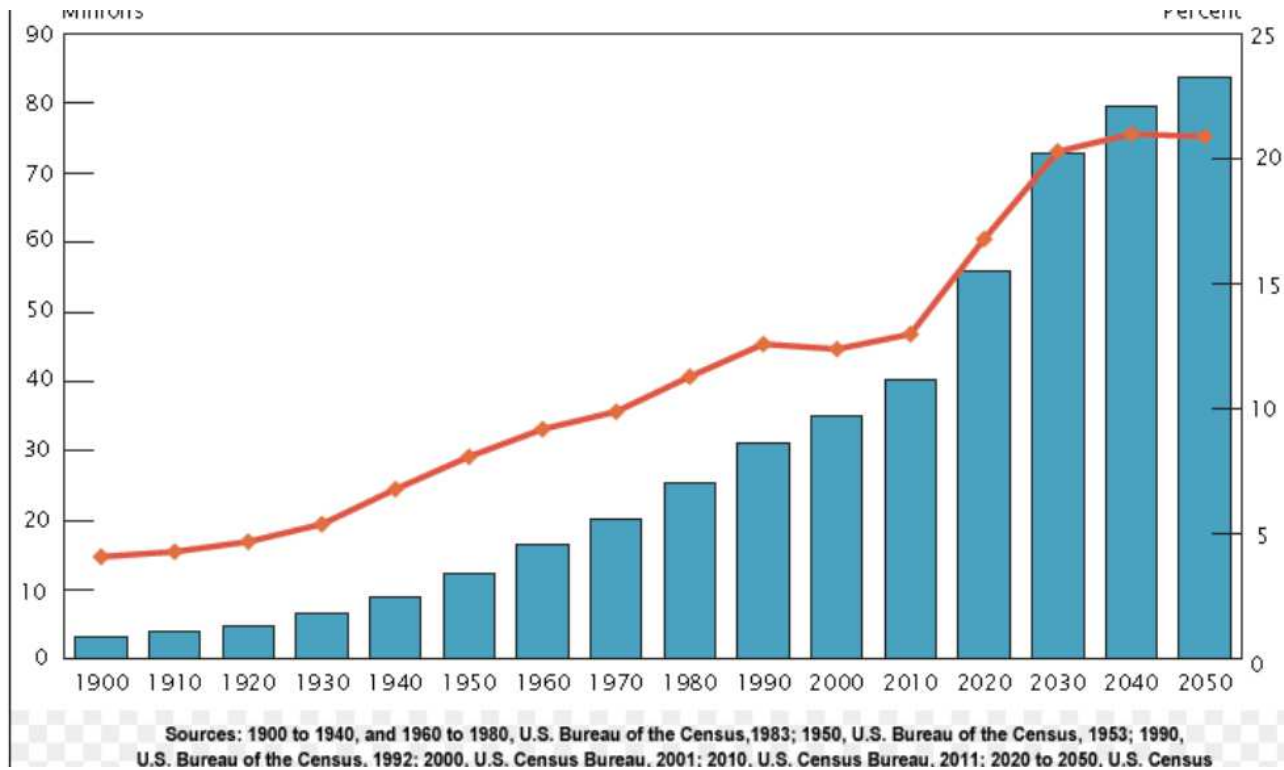
<https://nycworker.coop/immigrantcleaningco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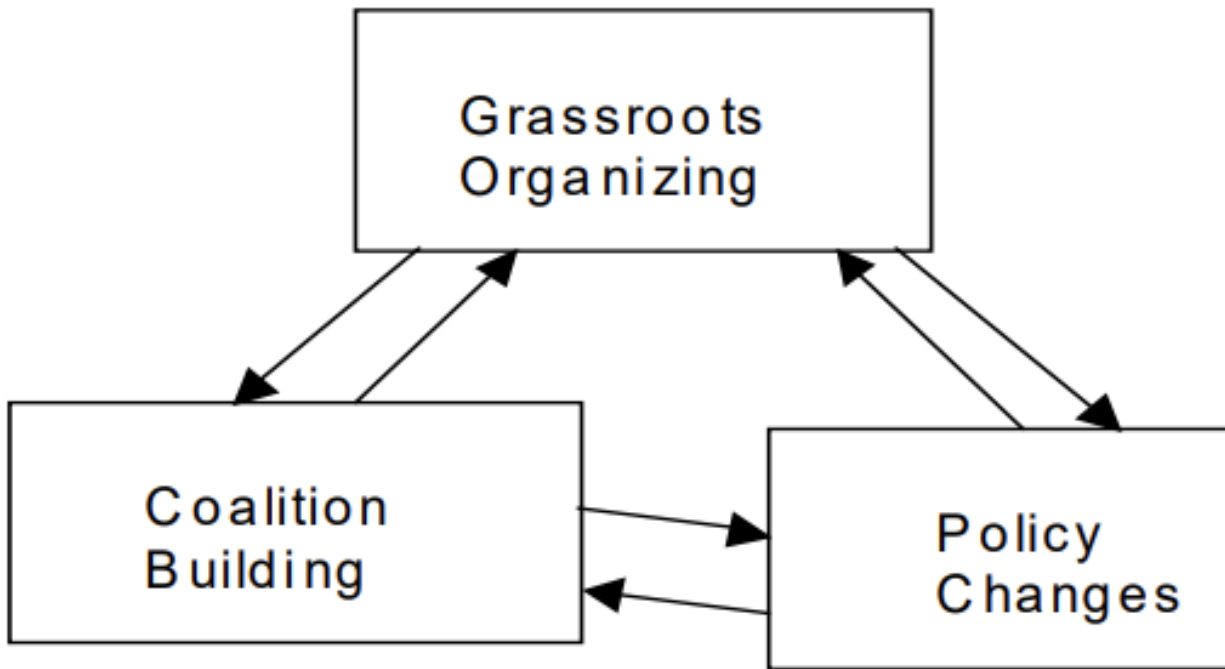
플랫폼 협동조합: Up & Go

- Center for Community Life 비영리 단체가 만듦
- 2017년 5월 실시
- 앱 개발- 5억 (Robin Hood Fund, Barclays Bank, Co-Lab)
- Brightly: 현재 4 쿠팡 멤버 (51명)
- 높은 임금 (\$22.25/시간)
-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교육 강화



- 2020년이 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보다 많아진다.
-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의 16%인 15억이 조금 안 될 것이다.

노인 홈케어 현실



- 1970년 전 홈케어 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음.
- 1970년대후: 가족들의 의무
- 법 제정: AB 1682 (California)
- AB1682, 1999년 법률은 2003년까지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 기록 고용주를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홈 케어 노동자 조직

홈케어 노동자 노조 조직

Table 2: Organizing Benchmarks and Key Issues

County	Organizing Started	Public Authority Ordinance Passed	Union Election	Union Contract(s)	No. of Workers	Conditions
Los Angeles	1987	1997	1999	1999- 2004	74,000	\$6.75/hr medical
Alameda	1993	1993	1994	1997-2000 2000-2002	7,000	\$7.82/hr medical
San Francisco	1993	1995	1996	1997-2000 Currently in negotiations	8,000	\$9.70/hr medical dental



Home-based worker coop platform

<https://informingfamilies.org/carina/>

- SEIU 775 홈케어 노동자 조직 2002년 시작
- Carina는 자격을 갖춘 가정 의료 보조원과 워싱턴 주의 메디케이드 및 주 자금 지원 고객을 연결합니다.
- Platform- home care, Child care, provide care
- WHAT IS CARINA?
- 카리나는 메디케이드를 지원받는 고객과 DSHS를 통해 계약된 개별 제공자(IP)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무료 셀프 서비스

홈케어 쿠파 모델

JOB TRAINING	INDEPENDENT CAREGIVER	CONVERSION	MULTI-STAKEHOLDER/SOLIDARITY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South Bronx, NY), est 1985 772 members, 70% of whom are members	Cooperative Care (Wautoma, WI), est 2001, 70 members	I Am Unique Case Management and Special Services (Raleigh, NC), est. 1994, 77 workers	Partners in Personal Assistance (Ann Arbor, MI), est. 1996 76 members, 32 consumers; 44 personal assistants
Home Care Associates (Philadelphia, PA), est 1993 138 workers 40% of whom are members	Yet-to-be Incorporated (Outagamie County, WI)	Quality Care Partners (Manchester, NH) est 1993, 37 workers	
	Yet-to-be Incorporated (Hilo Hawaii)	Care at Home Dioces of Brooklyn (Brooklyn, NY), est 1990, 175 workers ¹⁹	
		Andersson Caregiver Group (Mendocino County, CA), est 1996, 45 workers	

Table 1 summarizes the existing and emerging home care cooperatives (with emerging cooperatives listed in blue).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 (CHCA)



- 1985년 Bronx, NY
- 12 홈 헬스 에이드 (보조간호원으로 시작)
- 2000 넘는 노동자 주인 (90%)
- 6개월 넘는 직업 훈련

- 비슷한 조직: Home Care Associates (HCA) in Philadelphia (1993): 40 % 노동자 주인

한국 가사노동자의 현실과 권리보호를 위한 과제

최영미_(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소개

- 1999. 10. 28 : IMF 직후 전국실업단체연대 결성 및 실업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여성 돌봄일자리사업단 발족. 2004년 전국조직 발족
 - 일하는 여성의, 일하는 여성에 의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조직
 -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들자”
- 2004년 '전국여성일용가사사업단' 발족
- 2008년 '협동조합형 조직 만들기' 운동
- 2012년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로 전환
- 2013년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2021년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8 , 사회적기업 2, 비영리사단법인 1, 협력기관5

가사노동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당사자조직으로서 자기 선언”

한국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의 특징

1.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

- 가사노동자란 ‘하나 또는 여러 가구’ 내에서 ‘고용관계’를 통해 ‘생계수단’으로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ILO189호 협약)
- 가사노동이란 ‘청소, 요리, 세탁, 다림질,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가사노동자법’ ‘백과사전’)

2. 가사노동은 사람의 역사와 더불어 늘 있어왔지만 외부에서 ‘가사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IMF 이후였음

- 직업안정법(1962 제정.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1967년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도입)
- 1966년, 서울YWCA가 주부들의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시간제 가정부’ 사업 시작.
- 1999년 전후 전국의 실업단체에서 중고령 여성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일용가사사업단(현재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발전)’ 운영

한국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의 특징

3. 한국 가사노동자의 특징

- 전세계적으로 약 1억에 이르는 가사노동자가 있으며 83%가 여성, 다수가 이주노동자임
- 한국의 경우 20- 40만 명의 가사노동자가 있으며 99%가 여성임. 다만 가사노동자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외국인력이 종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10%로 추정되는 이주 가사노동자는 절대다수가 중국동포, 소수가 불법체류자임
- 종사자 연령대는 60대 45%, 50대 37%, 70대 12%로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서 특성을 강하게 띄고 있음. 다만 직종별로 최근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청년(아르바이트)들의 진입이 나타나고 있음
- IMF 당시 생계형 일자리에서 차츰 파트타임형 일자리로 변모하고 있음(주당 근로시간 29시간,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53%, 100- 200만원 40%)
- * 최준하(2020),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 토론회, 이수진의원실 등
- 2006년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의 도입 이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가사노동자'로 이분화
- * 공식부문 노동자(바우처 약20만, 노인요양 약38만)와 비공식부문 노동자(약20-40만)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고충

-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험, 퇴직금, 최저임금, 휴가 및 휴식권 등 노동자의 권리 전반에서 배제
- ✓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됨으로써 개인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불안정성
- ✓ 낮은 수준의 업무 표준화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문제 심각
- ✓ 경력개발, 이직전직훈련, 직업훈련 공백으로 직업적, 사회적 지위 향상 불가
- ✓ 개별 호출노동으로 인한 고립감, 감정적 스트레스 심화
- ✓ 직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인권문제

- 이0(62세) : 19년 5월 고객 요청으로 의자 위에 올라가 후드 위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 하지 및 발목 골절. 1달 병원 입원, 7개월 휴직. 본인 부담으로 치료, 실업급여 없음
- 김00(63세) : 20년 2월 고객 집 앞 계단에서 굴러 무릎 원형파열. 병원 3주 입원, 2달 간 일을 못함. 본인 부담으로 치료, 실업급여 없음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

1. 코로나19의 직격탄

- ✓ 송00(59세) : 일하는 집이 8곳에서 5곳으로 감소. 우울증도 있지만 생활비도 모자라는 판에 병원에 다닐 엄두도 못내고 있음
- ✓ 장00(63세) : 주3회 3가정에서 서비스를 했으나 완전히 중단됨
- ✓ 곽00(65세), 박00(62세) : 주5일 종일 서비스가 완전 중단되어 소득 없음

2.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

- ✓ 정기성 주문에서 일회성 주문 증가로 고용불안 확대
- ✓ 개인간 거래 플랫폼의 확대로 노동자의 하중 증가
- ✓ 로컬직업소개소, 비영리조직들의 정체, 축소

가사노동자
20-40만 명 중
약3-6만명
*전체 플랫폼 종사자
469천명
*여성 156천명

*플랫폼노동자 비중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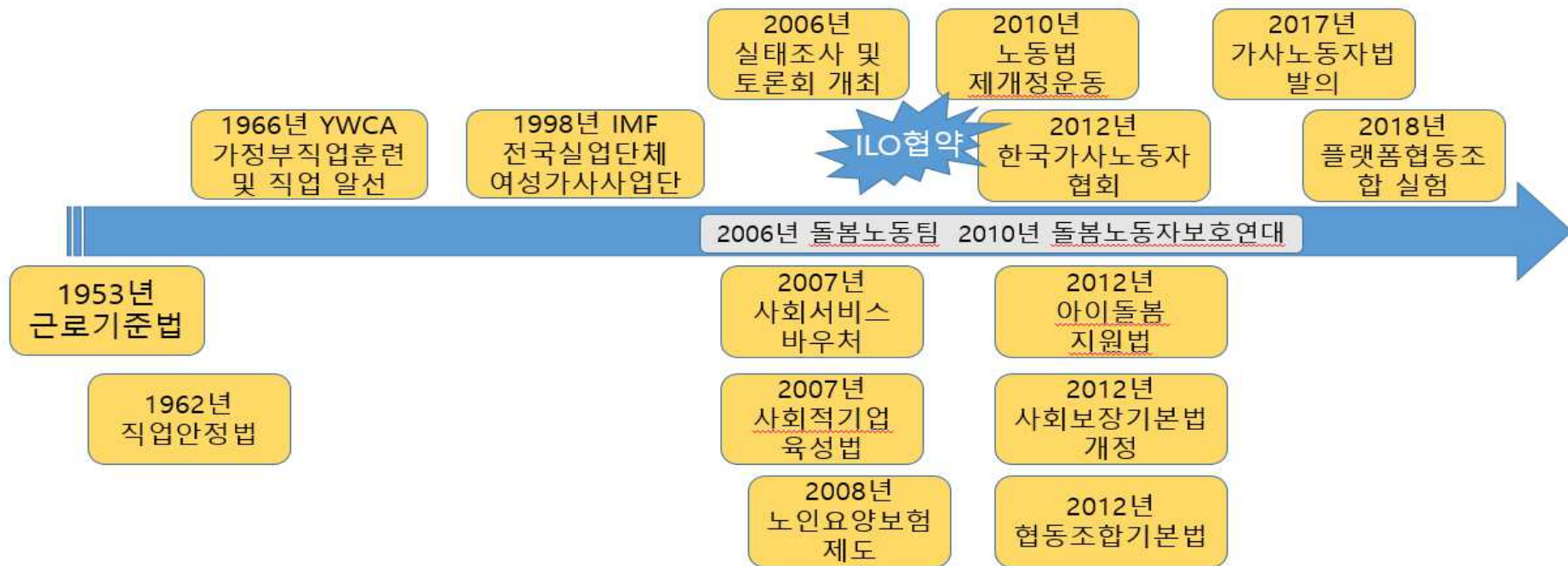
프리랜서 65만 중
e랜서 등록 36만

음식배달대행기사
약8만명 중
0.5-1.9만명(2016.
노동연구원)

대리기사
카카오T 등록
13만명

가사노동자 보호의 주체_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 ✓ 사회적경제기업 등장 전에는 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보호에 앞장섬
- ✓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에는 많은 조직들이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설립을 통해 운동에 참여
- ✓ 2015년 전후로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18년 플랫폼 협동조합이 등장



권익보호활동_취업알선과 최소한의 시장 규율 형성

1. 취업알선 : '우렁각시' '돌봄과살림'

- 우렁각시 : 전국 약 1천 여명
- 돌봄과살림 : 전국 약 1만 여명

2. 시장규율의 형성

- 회원간 토론을 통한 시장요금 (서비스요금) 및 회비 결정
- 고객약관을 통한 공식적 계약관계와 가능/불가능한 서비스 제시
- 가사/베이비시터 배상보험 및 고충처리수단 도입

직원 근로계약	구직자 X	조합원 회원 <u>회원규정</u>
기업 이용약관	직업소개소 X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u>고객약관</u>
고객	구인자	고객 이용자
직원과 고객 보호의 모든 책임을 기업이 진다	서비스의 모든 책임을 개인들이 진다	노동자와 이용자 보호 책임을 회원과 기관이 합의, 조정한다

권익보호활동_취업알선과 최소한의 시장 규율 형성

우렁각시의 서비스	가사서비스 이용의 지혜
<p>① 우렁각시에서 제공되는 가사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청소/세탁/정리정돈 <p>※ 반찬 조리, 식사 준비 등 그 밖의 서비스는 비용 추가 혹은 협의에 의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p> <p>② 우렁각시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걸레질/분해를 해야 하는 가전제품 청소/베란다 밖 유리창 청소(1층 포함)/전기 시설된 수족관 청소/기타 관리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이나 관련 전문자격을 요하는 경우 	<p>★ '가사관리사'가 저희 직업명입니다. '관리사'라고 불러주세요.</p> <p>★ 다음과 같은 청소도구를 준비해주시면 작업의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공청소기 ◦ 초극세사걸레 10장 ◦ 면걸레 3장 ◦ 밀대걸레 ◦ 먼지떨이개 ◦ 고무장갑(주방용*청소용) ◦ 수세미 ◦ 솔 ◦ 세제(주방용*청소용) ◦ 유리세정제 ◦ 락스 ◦ 기타 <p>★ CCTV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p> <p>★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점이 그런지 즉각 관리사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조합으로 연락해 상담하시면 됩니다.</p>
우렁각시 고객의 권리	우렁각시 고객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관리사 지정권. 단, 관리사의 스케줄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사 사전 면접권. 사전 면접비는 10,000원입니다. 3. 담당 관리사 교체 요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돈 요구 등 관리사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시정 요청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4. 고충상담권. 관리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p>※ 기타, 관리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의 물품 등에 손상이 간 경우 전문보험사의 감정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시간 근무시 20분, 8시간 근무시 4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십시오. 2. 4시간 근무시 약간의 간식, 8시간 근무시 점심식사와 약간의 간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3. 서비스 요일, 시간 변경은 희망일 3일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4.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으로 연락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배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관리사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서비스 요금은 관리사에게는 월급입니다. 정한 기일을 잘 지켜주십시오. 6. 귀중품은 따로 관리해 주십시오. 만약의 분실시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상과 같은 고객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활동_직업역량과 주인의식 향상

- ✓ 2004년 표준교육교재 및 커리큘럼 도입, 2008년 비영리단체간 교육표준화 일부 진행
- ✓ 2016, 2017년 가사지원, 아이돌봄서비스 NCS 개발
- ✓ 2018년 가사돌봄, 아이돌봄 단체표준 제작
- ✓ 2018년 NCS활용 가사관리전문가, 2020년 스마트정리수납 자격증 도입, 현재 아동돌봄전문가 자격증 신청 중
- ✓ 자체 교육을 통한 다양한 보수교육 진행



권익보호활동_집단관계 형성 및 리더 육성

- ✓ 가사노동자들의 집단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 개별 호출노동의 고립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한 현장지도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1. 집단관계 형성 지원 : 상조회, 총회, 임원회의, 취미모임
2. 사회적경제기업(노동자협동조합)으로 독립을 통한 조직화 : 공동출자, 1인1표, 임원으로 참여



권익보호활동_최소한의 사회안전망

1. 신용카드 대출을 대치하는 소액대출사업(주민금고 만들기)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상조회 부설 주민금고(2014년 2월 설립)

-2019년 말 현재 조합원 60명 중 38명 가입. 출자금 총액 65,222,020원

-대출 : 일반대출(10건. 생활자금, 월세 보증금, 병원비 등), 코로나 긴급생활자금 대출(7건. 출자회원과 조합원 모두 포함), 특별대출(한국가사노동자협회 긴급자금), 연대단체 기금 출자(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협동기금)

2. 상호부조사업 : 회원상조회 운영

3. 비영리단체 프로젝트를 활용한 여행, 문화활동

4. 외부단체와 협력을 통한 의료지원사업, 코로나생활자금 대출 연계

5. 정보 나누기 :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긴급지원금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익보호활동_사회권 획득운동

실태조사 및 토론회, 법 제개정 요구, 인식개선캠페인(2004-2009)



권익보호활동_사회권 획득운동

법제개정운동, ILO 189호협약 비준 촉구운동(2010-2021)



권익보호활동_사회권 획득운동



상임위, 법사위 기간 동안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하지만 결국은 당리당락으로 무산됨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또 하나의 가족
가사노동자를 응원해주세요

존중받는 노동이 질 높은 서비스로 돌아옵니다

2021년 5월 21일 '가사노동자법' 국회 통과!

- ✓ 2006년 전국실업단체연대 '우렁각시사업단'(현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의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 실태조사 및 토론회'
- ✓ '돌봄노동팀' 구성과 활동 : 실업, 자활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돌봄노동팀을 구성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연맹 등)
- ✓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 발족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전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식회사 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 ✓ 2010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의원)
- ✓ 2011년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제189호) 채택
- ✓ 2012년 ILO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월 16일 기념행사 개최
- ✓ 2012년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 ✓ 2013년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미경 의원, 김춘진 의원)
- ✓ 2015년 :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
- ✓ 2016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인영 의원)
- ✓ 2017년 3월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 ✓ 2017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형수 의원,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부)
- ✓ 2020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 고용노동부)
- ✓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이자 의원)
- ✓ 2021년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가사노동자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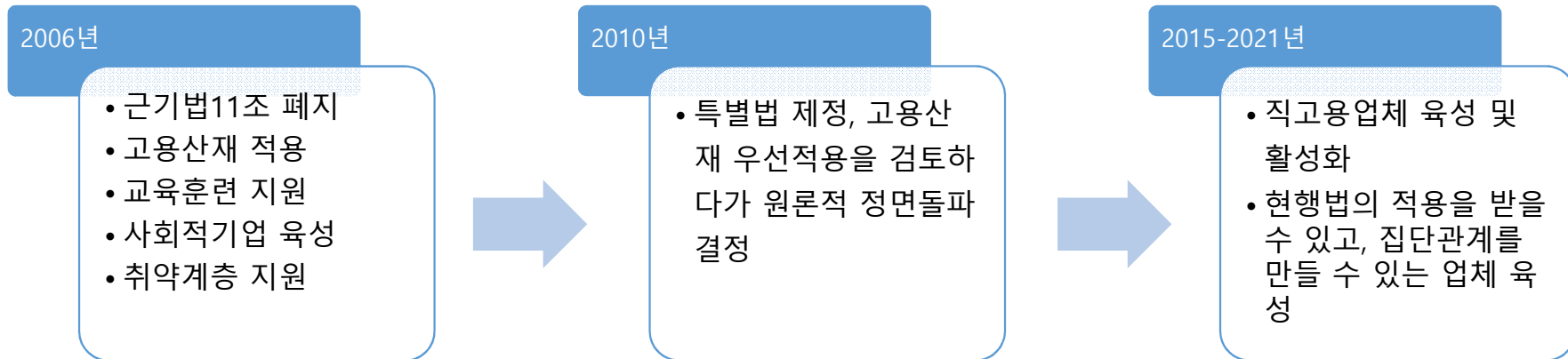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제외 사유]

-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다, '개인 고용주'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등
- 법령은 '가사사용인'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해석에 맡김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지만 어느 견해도 근로법 적용 제외를 부정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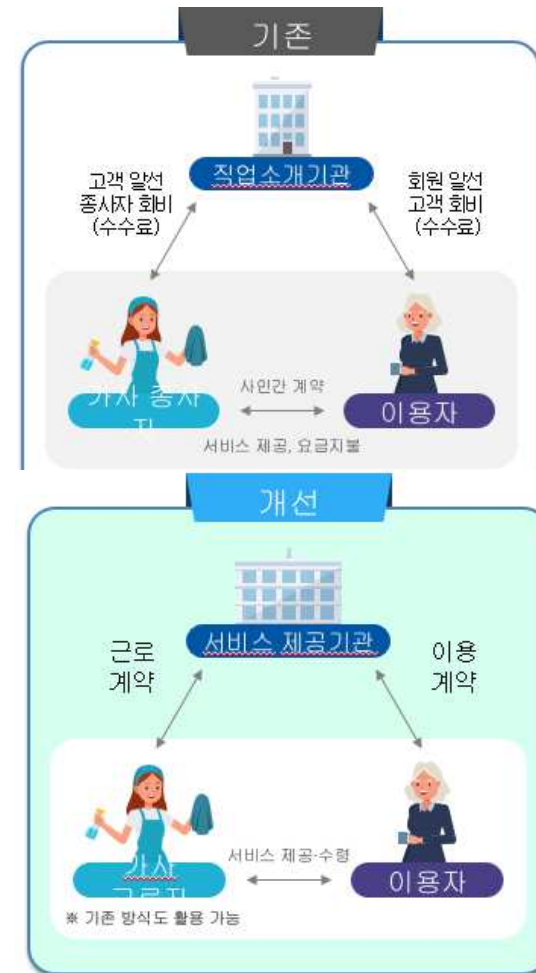
[하갑래, 2011,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그 사유가 명확치 않고,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입법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장의 요구 흐름]



가사노동자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 ✓ 명칭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 ✓ 2021년 5월 21일 국회 통과, 6월 9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1년 뒤 시행
- ✓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명시. 특히 최초로 입주가사노동자 보호조항 삽입
- ✓ 제공기관은 당연히 근기법 준수. 다만 호출형 단시간 노동, 가정내 노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는 이 법을 우선 적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기관, 이용자에게 세제 감면, 제공기관과 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입 및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한 정책 논의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1.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

- 법에서는 원칙을 명시했지만 실태에 대한 파악은 거의 되어있지 않다

2. 미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 자기 선택에 의해 혹은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여전히 직업소개와 개인간 거래에 남아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3. 향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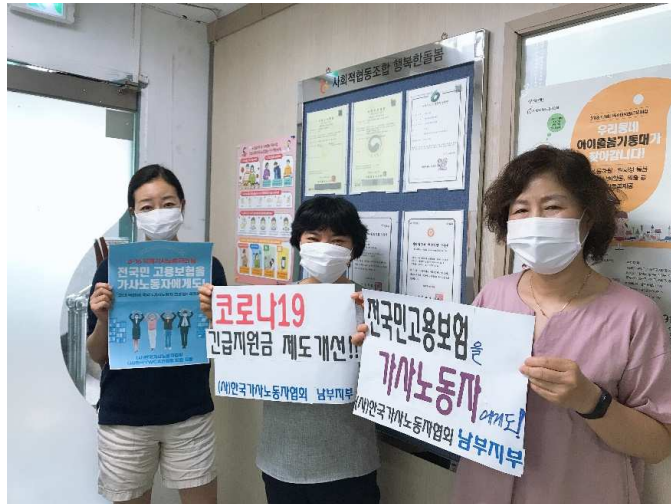
- 가사서비스 분야는 다른 플랫폼 노동과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직업소개소와 같은 형식의 이용자-노동자간 직거래플랫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 적극적 실태조사 필수!!!
- ✓ 전국민고용보험제,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 가사서비스 공공 플랫폼의 도입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 ✓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확대와 이를 위한 운동주체가 필요
 - 기존의 비영리조직-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운동은 한계에 봉착
 - 그간 관심이 희박했던 노동조합운동과의 연대는 가능할까
 - 노동조합 방식은 가사노동자들을 폭넓게 묶을 수 있는가
 -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노사관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은 가능한가

- ✓ 법의 내실 있는 시행과 확대가 필요
 - 중앙 및 지역의 고용정책심의회 활성화 요구
 - 법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 제정운동



감사합니다